

# 『金匱要略心典』濕病條文에 대한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仙蘭·李容範·金成煥

## 略論 『金匱要略心典』濕病條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仙蘭·李容範·金成煥

通過分析『金匱要略心典』濕病條文中尤在涇的注釋, 得出如下結論.

濕邪感人, 始于太陽而流入關節, 平日士德不及之人, 易感濕邪. 濕病, 無寒不作, 如癩病非風不成. 濕病之表證是身煩疼、關節疼煩; 裏證是小便不利、大便反快. 濕黃由于濕邪外盛而其陽內鬱發生. 表證誤下發生的噦、胸滿、小便不利等證原因是陽氣內鬱. 發熱, 日晡所劇, 不是與肺陽明有關, 而是與風有休作有關聯.

治療外濕證的發汗法是微微發汗, 不是過度發汗. 如果發汗過度, 僅去風邪而濕邪尚存. 若風濕在表, 可以用麻黃加朮湯、麻黃杏仁薏苡甘草湯以發汗, 若已汗出而表虛, 可以用防己黃芪湯以實表行濕, 若表虛無熱, 不可發陽, 所以用桂枝附子湯以溫經散濕, 或用白朮附子湯以補陽行濕, 若表裏之陽俱虛, 可以用甘草附子湯以補中兼發散.

Key Words: 濕病, 內濕, 外濕, 風有休作, 微微發汗.

陰受濕氣……傷於風者, 上先受之, 傷於濕者, 下先

## I. 서론

濕病에 대하여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濕勝則濡泄, 甚則水閉腫脹”<sup>1)</sup>이라 하여泄瀉 尿少 水腫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因于濕, 首如裹”<sup>2)</sup>라 하여 淸陽이 올라가지 못하여 頭昏沈重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素問·痺論』에서는 “濕氣勝者, 爲著痺”<sup>3)</sup>라고 하여 肌膚不仁, 關節疼痛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또한 『素問·太陰陽明論』에서는 “陽受風氣,

受之”<sup>4)</sup>라 하여 下肢浮腫 淋濁 帶下 泄瀉 등의 濕邪가 下注하여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內經』에서는 다양한 濕病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만, 濕病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서술은 『金匱要略』에 나온다. 『金匱要略·痙濕喝病第二』에서는 주로 外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sup>5)</sup> 이에 대한 처방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清代 尤在涇이 저술한 『金匱要略心典』은 『金匱要略』의 중요 주석서로서 현재 비교적 뛰어난 주석서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sup>6)</sup> 이에 저자는 『金匱要

\*교신저자: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730-0668, ybl@mail.sangji.ac.kr

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1039.  
2)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 39-40.  
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556.  
4) 印會河, 張伯訥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204.

5)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408.  
6) 印會河, 張伯訥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204.  
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6.  
8) 전통의학연구소 편.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p. 299.

略心典」의 濕病條文을 번역 연구함으로써 尤在涇 주석의 특징적인 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金匱要略心典-經濕鳴病第二」의 濕病관련 조문의 원문과 尤在涇 注를 번역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대 주석서들과 비교 고찰하였다.

### 2. 저본

본 번역연구에 사용된 저본은 明清名醫全書大成 尤在涇醫學全書에 실린 「金匱要略心典」<sup>9)</sup>이다.

### 3. 句讀과 해석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 III. 본론

[原文] 1

太陽病. 關節疼痛而煩. 脈沈而細者. 此名中濕. 亦名濕痺. 濕痺之候. 小便不利. 大便反快. 但當<sup>①</sup>利其小便.

[校勘]

① 當: 趙開美本에서는 ‘當’이 ‘常’으로 되어 있다.

[解釋]

太陽病에서 뼈마디가 몹시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

며 맥이 沉하면서 細한 것은 中濕이라고 하며, 또한 濕痺라고도 한다. 濕痺의 증상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나 대변은 오히려 시원스러우니, 다만 마땅히 소변을 잘 통하게 해주어야 한다.

[注]

濕爲六淫之一, 故其感人, 亦如風寒之先在太陽. 但風寒傷於肌腠, 而濕則流入關節. 風脈浮, 寒脈緊, 而濕脈則沉而細. 濕性濡滯而氣重着, 故亦名痺. 痺者閉也. 然中風者, 必先有內風而後召外風; 中濕者, 亦必先有內濕而後感外濕, 故其人平日土德不及而濕動於中, 由是氣化不速, 而濕侵於外, 外內合邪, 爲關節疼痛, 爲小便不利, 大便反快. 治之者必先逐內濕, 而後可以除外濕, 故曰當利其小便. 東垣亦云: 治濕不利小便, 非其治也. 然此爲脈沉而小便不利者設耳, 若風寒在表, 與濕相搏, 脈浮惡風, 身重疼痛者, 則必以麻黃、白朮、薏苡、杏仁、桂枝、附子等, 發其汗爲宜矣. 詳見後條.

[解釋]

濕은 六淫중의 하나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감축하면 또한 風寒처럼 먼저 太陽에 침입한다. 다만 風寒은 肌腠를 상하는데 濕은 關節에 스며든다. 風은 脈이 浮하고 寒은 脈이 緊하나 濕으로 인한 脈은 沉하면서 細하다. 濕의 성질은 적시고 체하게 하며 氣는 무겁고 잘 들러붙으니, 그러므로 또한 痺라고도 한다. 痺는 閉의 의미이다. 그러나 中風은 반드시 먼저 內風이 있고 나서 外風을 불러들이고, 中濕도 또한 반드시 먼저 內濕이 있고 나서 外濕을 당하게 되니, 그러므로 그 사람이 평소 土德(土의 작용력)이 모자라 中에서 濕이 요동을 치면, 이를 말미암아 氣化작용이 신속히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濕이 밖에서 침입하여, 內外에서 邪가 합하므로 關節이 육신거리면서 달아오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은 오히려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다. 치료할 때 반드시 먼저 內濕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外濕을 제거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그 소변을 잘 나가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東垣은 또한 “濕을 치료할 때 小便을 下利시키지 않으면 맞는 치료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맥이 沉하고 소

9)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105-108.

便不利한 자를 위하여 설정한 것일 따름이니, 만약 風寒이 表에 있고 濕과 더불어 서로 합쳐져서 脈浮, 惡風, 身重疼痛의 증상이 있다면 麻黃, 白朮, 薏苡, 杏仁, 桂枝, 附子 등으로 發汗하는 것이 적당하다. 상세한 것은 아래 구절에 나온다.

[考察] 이 조문은 內外의 濕邪로 인한 濕痺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尤在涇은 병인에 있어서 內濕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外濕이 침입하여 濕痺가 되었다고 보아 內濕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치법에 있어서도 利小便하여 內濕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外濕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濕邪가 밖에서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이 浮緩하여야 하는데, 지금 沈細한 것은 沈은 병이 裏에 있음을 나타내고 細는 濕을 주관하므로, 濕邪가 관절에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脾에 침입하여 內外에 모두 사기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濕痺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대변이 잘 나가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에 대하여는 ‘濕勝則濡瀉(『素問陰陽應象大論』)’하므로 대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濕이 중초에 막혀서 陽氣가 기화되지 못하므로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처방으로는 오령산을 제시하였고, 『金匱發微』에 ‘宜五苓散倍桂枝’라 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sup>10)</sup>

[原文] 2

濕家之爲病, 一身盡疼, 發熱, 身色如熏黃也。

[解釋]

濕으로 病이 나면 온 몸이 다 옥신거리고 열이 나며 온 몸이 연기에 그을린 듯이 누렇다.

[注]

濕外盛者, 其陽必內鬱. 濕外盛爲身疼, 陽內鬱則發熱. 熱與濕合, 交蒸互鬱, 則身色如熏黃. 熏黃者, 如烟之熏, 色黃而晦, 濕氣沉滯故也. 若熱黃則黃而明, 所謂身黃如橘子色也.

[解釋]

濕이 밖에서 盛한 자는 그 陽이 반드시 안에서 鬱

滯되는데 濕이 밖에서 盛하면 몸이 옥신거리게 되고 陽이 안에 鬱滯되면 發熱한다. 熱과 濕이 합하여 서로 찌고 鬱滯되면 몸이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누렇다. 마치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그 색이 누렇고 어두운 것은 濕氣가 가라앉고 울체되었기 때문에 생긴다. 만약 熱黃이라면 그 색이 누렇고 밝으니, 이른바 몸이 누렇기가 마치 꿀집질과도 같다는 것이다.

[考察] 이 조문은 濕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尤在涇은 濕이 밖에서 성하면 안에서 陽이 울체되어, 濕黃이 발생하는데, 濕이 밖에서 성하므로 身疼의 증상이 나타나면 陽이 내부에서 울체되어 발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熱黃에서는 밝은 황색이 나타나지만, 濕黃에서는 어두운 황색이 나타난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原文] 3

濕家 其人但頭汗出, 背強, 欲得被覆向火. 若下之早則噦, 或胸滿, 小便不利, 舌上如胎<sup>①</sup>者, 以丹田有熱, 胸上有寒, 渴欲得飲而不能飲, 則口燥煩也。

[校勘]

① 胎: ‘胎’는 ‘苔’와 같다. ‘如胎’라는 것은 혀 위가 濕潤白滑하여 胎와 비슷하지만 태는 아닌 것을 가리킨다.<sup>11)</sup>

[解釋]

濕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만 머리에만 땀이 나고 등이 뻣뻣하고 이불을 덮고 불 가까이 가려고 한다. 만약 설사를 너무 일찍 시키면 딸꾹질이 나거나 가슴이 그득하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며, 혀에 이끼가 낀 듯한 것은 단전에 열이 있고 가슴에는 찬 기운이 있기 때문이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 하나 마시지 못하므로 입이 말라 답답해한다.

[注]

寒濕居表, 陽氣不得外通而但上越, 爲頭汗出, 爲背強, 欲得被覆向火, 是宜驅寒濕以通其陽. 乃反下之, 則陽更被抑, 而噦乃作矣. 或上焦之陽不布而胸中滿, 或下焦之陽不化而小便不利, 隨其所傷之處而爲

1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6.

1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7.

病也。舌上如胎者，本非胃熱，而舌上津液燥聚，如胎之狀，實非胎也。蓋下後陽氣反陷於下，而寒濕仍聚於上，於是丹田有熱而渴欲得飲，胸上有寒而復不能飲，則口舌燥煩，而津液乃聚耳。

[解釋]

寒濕이 밖에 거처하면 陽氣가 밖으로 통하지 못하고 위로만 올라가므로 머리에서 땀이 나고 등이 뻣뻣하고 무엇인가를 뒤집어쓰려 하고 불쪽으로 향하고자 하니, 이때에는 마땅히 寒濕을 몰아내고 그 陽을 통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도리어 下法을 쓰면 陽이 더욱 억압을 받아 딸꾹질이 일어나게 된다. 혹은 上焦의 陽이 氣化작용이 안되어 小便이 不利하게 되는데 손상된 장소를 따라서 병이 생기게 된다. 舌上如胎라는 것은 원래 胃熱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혀 바닥의 津液이 건조한 것이 뭉쳐서 胎의 모양과 같지만 사실은 胎가 아니다. 대개 下法을 사용한 후에 陽氣가 오히려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寒濕은 그대로 위쪽에 모이므로, 이에 丹田에 열이 있어 목이 말라 마시려고 하나 가슴 위에는 寒이 있어 다시 마실 수 없게 된 것이니, 입과 혀가 마르고 달아오르지만 津液은 도리어 뭉쳐 퍼지지 못한 것일 뿐이다.

[考察] 이 조문에서는 寒濕이 表에 있어 발생하는 병증과 誤下하여 생기는 變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尤在涇은 誤下하여 생기는 딸꾹질과 胸滿 小便不利를 모두 陽氣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金匱要略講義』에서는 誤下하였을 때 胃氣가 억압을 받고 濕濁이 도리어 성해져서 딸꾹질이 생기며, 表濕이 內陷하여 氣化가 행해지지 않아서 胸滿 小便不利가 생긴다고 하여 주로 濕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誤下하였을 때의 처방에 대하여 錢天來는 계지부자탕과 감초부자탕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原文] 4

濕家下之。額上汗出。微喘。小便利者死。若下利不止者亦死

[解釋]

濕病 환자에 下法을 사용하여, 이마 위에 땀이 나며 약간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났는데, 소변이 잘 나가면 죽으며, 만약 설사가 그치지 않아도 또한 죽는다.

[注]

濕病在表者宜汗，在裏者宜利小便，苟非濕熱蘊積成實，未可遽用下法。額汗出微喘，陽已離而上行；小便利，下利不止，陰復決而下走。陰陽離決，故死。一作小便不利者死，謂陽上游而陰不下濟也，亦通。

[解釋]

濕病이 表에 있는 것은 마땅히 發汗시키고 안에 있는 것은 마땅히 利小便하는데, 만약 濕熱이 쌓여 實證이 형성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下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마에 땀이 나고 숨을 조금 헐떡이는 것은 陽이 이미 脫離하여 上行한 것이고 小便이 利하고 설사가 그치지 아니함은 陰이 다시 決離하여 아래로 달리는 것이다. 陽과 陰이 서로 결별하였으므로 죽는다. 어떤 책에는 '小便不利者死'라 하였는데, 陽이 위로 뜨고 陰은 아래에서 구제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니, 또한 통한다.

[考察] 이 조문은 濕病에 誤下하여 陰陽이 離決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앞 조문과 이 조문은 똑같이 하법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의 變證을 설명하고 있지만 병의 상태와 예후는 다른데, 그 관건은 평소 병인의 中陽이 어떠한가이다. 앞 조문에서는 表陽이 비록 울체되어 있지만 裏陽이 아직은 괜찮으므로, 잘못 하법을 썼더라도 陽氣가 그대로 裏에 울체되고 잠복되어 陰邪와 싸울 수 있어 濕이 울체되고 열은 잠복된 형세를 이루지만, 이 조문에서는 中陽이 평소 虛하여 濕을 감축한 이후에 한번 잘못 下法을 사용하면 眞陽이 지켜지지 못하여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병증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頭汗증이 모두 나오는데 앞 조문의 頭汗出은 濕이 表에 울체되어 陽氣가 逆하여 위로 땀이 나오는 것으로, 초기에 보이며, 잘못 하법을 쓴 것과는 무관하므로, 邪氣가 울체된 중에 속하고, 이 조문에서 땀이 이마 위에서만 나는 것은 虛陽이 위로 떠서 생기는 것으로, 잘못 하법을 사용한 다음에 나

1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7.

타나므로, 虛證에 속한다.<sup>13)</sup>

[原文] 5

風濕相搏, 一身盡疼痛, 法當汗出而解, 值天陰雨不止, 醫云: 此可發其汗, 汗之病不愈者, 何也, 蓋發其汗, 汗大出者, 但風氣去, 濕氣在, 是故不愈也, 若治風濕者  
1. 但微微似欲汗出者, 風濕俱去也.

[校勘]

① 若治風濕者: 趙開美本에는 '發其汗' 세 글자가 더 들어가 있다.

[解釋]

風과 濕이 서로 합쳐져 온몸이 다 아프면 마땅히 땀을 내서 풀어야 하는데, 날이 흐리고 비가 그치지 않으면, 의사가 땀을 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지만 땀을 내어도 낫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무릇 땀을 내서 땀이 많이 나면 風氣만 제거되고 濕氣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이다. 만약 風濕을 치료하려면 다만 미미하게 흡사 땀이 나오려고 하는 정도로 發汗시키면 風濕이 모두 제거될 것이다.

[注]

風、濕雖并爲六淫之一, 然風無形而濕有形, 風氣迅而濕氣滯, 值此雨淫勝之時, 自有風易却而濕難除之勢, 而又發之速而驅之過, 宜其風去而濕不與俱去也, 故欲濕之去者, 但使陽氣內蒸而不驟泄, 肌肉關節之間充滿流行, 而濕邪自無地可容矣, 此發其汗, 但微微似欲汗出之旨歟?

[解釋]

風과 濕은 비록 모두 六淫중의 하나이지만, 그러나 風은 形이 없고 濕은 形이 있으며, 風氣는 빠르고 濕氣는 鬱滯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濕氣가 勝할 때에는 원래 風은 제거하기 쉽지만 濕氣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또한 發汗을 급하게 하여 너무 과하게 몰아내면 風은 제거되지만 濕은 風과 함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濕氣를 없애려면, 다만 陽氣로 하여금 안에서 쪼서 급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 陽氣가 筋肉, 關節사이 에 꽉 차서 흐르게 되

어, 자연히 濕邪가 허용될 공간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땀을 내는 것은 다만 미미하게 하여 흡사 땀이 막 나려고 할 것 같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考察] 이 조문에서는 風濕病의 發汗法은 陽氣가 안에서 쪼서 筋肉 關節사이를 꽉 찰 정도로 땀이 약간만 나와 함을 설명하고 있다.

[原文] 6

濕家病, 身疼發熱, 面黃而喘, 頭痛鼻塞而煩, 其脈大, 自能飲食, 腹中和, 無病, 病在頭中寒濕, 故鼻塞, 內藥鼻中則愈.

[解釋]

濕으로 병이 들어, 몸이 옥신거리고 열이 나며, 얼굴이 누렇고 숨이 차며,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맥이 大한데, 원래 음식은 잘 먹고, 뱃속이 편안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은 머리가 寒濕에 적중된 것이다. 그러므로 코가 막히니, 약을 코 속에 넣으면 낫는다.

[注]

寒濕在上, 則清陽被鬱, 身疼、頭痛、鼻塞者, 濕上甚也, 發熱、面黃、煩、喘者, 陽上鬱也, 而脈大, 則非沉細之比, 腹和無病, 則非小便不利, 大便反快之比, 是其病不在腹中而在頭, 療之者宜但治其頭, 而毋犯其腹, 內藥鼻中, 如瓜蒂散之屬, 使黃水出則寒濕去而愈, 不必服藥以傷其和也.

[解釋]

寒濕이 위에 있으면 清陽이 鬱滯된다. 몸이 옥신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는 것은 濕이 위에서 심한 것이다. 發熱하고 얼굴이 누렇고 가슴이 달아오르고 숨을 헐떡이는 것은 陽이 上焦에서 막힌 것이다. 그러나 맥이 大한 것은 沈細한 종류가 아니며 腹和無病은 또한 小便不利, 大便反快의 무리가 아니다. 이는 그 병이 腹中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다는 것이니, 치료할 때 마땅히 그 頭部만을 치료해야 하고 腹部는 犯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 안에 약을 넣는 것은 예를 들면 瓜蒂散과 같은 것으로 누런 콧물이 나오게 한다면 寒濕이 제거되어 낫는 것이니, 약을 복용하여 그 조화로움을 깨뜨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考察] 이 조문은 頭中寒濕으로 인한 鼻塞에 대하

1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8.

여 설명하고 있다. '納藥鼻中'의 대응 처방으로 후대 『證治準繩』의 辛夷散(辛夷 細辛 藁本 白芷 川芎 升麻 防風 甘草 木通 蒼耳子)을 많이 사용하였다.<sup>14)</sup>

[原文] 7-1

濕家身煩疼. 可與麻黃加朮湯. 發其汗爲宜. 慎不可以火攻之.

[解釋]

본래 濕이 있는 사람이 몸이 답답하고 옥신거리면 麻黃加朮湯을 줄 수 있으니, 땀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삼가 火로써 공격해서는 안 된다.

[注]

身煩疼者, 濕兼寒而在表也. 用麻黃湯以散寒, 用白朮以除濕. 喻氏曰: 麻黃得朮, 則雖發汗, 不至多汗. 而朮得麻黃, 并可以行表裏之濕. 不可以火攻者, 恐濕與熱合而反增發熱也.

[解釋]

身煩疼한 것은 濕과 寒이 함께 表에 있는 것이다. 麻黃湯을 써서 散寒하고 白朮을 써서 除濕한다. 喻氏는 "麻黃이 白朮의 힘을 얻으면 비록 發汗하지만 多汗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白朮이 麻黃의 힘을 얻으면 表裏의 濕을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火로 攻擊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濕과 熱이 합쳐져 도리어 發熱을 더 加重시킬까 염려하는 것이다.

[原文] 7-2

麻黃加朮湯方

麻黃三兩 去節 桂枝二兩<sup>①</sup> 甘草一兩 炙 白朮四兩 杏仁七十個 去皮尖

上五味 以水九升. 先煮麻黃. 減二升. 去上沫. 內諸藥. 煮取二升半. 去滓. 溫服八合. 覆取微汗.

[校勘]

① 二兩: 趙開美本에는 '去皮'두 글자가 더 있다.

[解釋]

마황가출탕방

마황(마디를 버린 것) 3냥, 계지(겉껍질을 버린 것) 2냥, 자감초 1냥, 백출 4냥, 행인(겉질과 끝을 버린 것) 70알.

위의 5가지 약 중 먼저 마황을 물 9되에 넣고 달여 2되가 줄면 위의 거품을 걷어 버리고, 나머지 약을 모두 넣고 다시 달여 2되 5흡이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8흡을 따뜻하게 해서 먹는데, 이불을 덮고 약간 땀을 낸다.

[考察] '去皮' 두 글자를 빼는 데에 대하여 『醫宗金鑑』에서는 "桂枝의 氣味가 辛甘한 것은 모두 껍질의 작용인데 만약 去皮하면 마른나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어찌 解肌發汗기능이 있을 리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두 글자를 뺀다."라고 하였다<sup>15)</sup>.

[原文] 8-1

病者一身盡疼. 發熱. 日晡所劇<sup>①</sup>者. 此名風濕. 此病傷於汗出當風. 或久傷取冷所致也. 可與麻黃杏仁薤苈甘草湯.

[注釋]

(1) 日晡所劇者: '發熱日晡所劇'에 대하여 여러 注家들의 견해가 같지 않았는데 趙以德은 '陽明旺於申酉'라고 하였고<sup>16)</sup>, 徐彬은 "日晡爲申酉時, 金之氣, 肺主之."<sup>17)</sup>라고 하여 日晡라는 시간과 金 陽明을 연결시켰고, 吳謙은 "濕家於熱, 早暮不分微甚; 風濕之熱, 則日晡必劇. 蓋以濕無來去, 而風有休止, 故名風濕."이라고 하였고<sup>18)</sup>, 尤在涇도 吳謙의 注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日晡에 더 심해진다고 하여 晝와 陽明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여 日晡에 열이 심해지는 것은 金이나 陽明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風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解釋]

환자가 온몸이 다 옥신거리고 열이 나는데 해질

15) 吳謙 等著.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468.  
16) 趙以德 著. 金匱要略校注語譯金匱要略衍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31.  
17) 徐彬 著. 金匱要略論注.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 22.  
18) 吳謙 等著.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470.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29.

무렵에 심한 것을 風濕이라고 한다. 이 병은 땀이 났을 때 바람을 쏘았거나 혹은 오래 동안 찬 것을 탐하다가 손상되어 생긴 병이다. 마황행인의이감초탕을 줄 수 있다.

[注]

此亦散寒除濕之法。日晡所劇，不必泥定肺與陽明，但以濕無來去，而風有休作，故曰此名風濕。然雖言風而寒亦在其中，觀下文云“汗出當風”，又曰“久傷取冷”，意可知矣。蓋瘧病非風不成，濕痺無寒不作，故以麻黃散寒，薏苡除濕，杏仁利氣，助通泄之用，甘草補中，予勝濕之權也。

[解釋]

이 또한 散寒除濕하는 방법이다. 日晡(금이 주관하는 시기)에 더 심해진다고 하여 폐와 陽明에만 열매일 필요는 없고, 다만 濕에는 오고 감이 없고 風에 쉬었다 발작하였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風濕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風이라고만 하여도 寒이 또한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니, 관찰하건대 아래 문장에서 ‘汗出當風’이라고 하고 또 ‘久傷取冷’이라고 한 것에서 그 뜻을 가히 알 수 있다. 무릇 瘧病은 風이 아니면 생기지 않고 濕痺는 寒이 없으면 발작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麻黃으로 散寒하고 薏苡仁으로 除濕하고, 杏仁으로 利氣하여 通泄의 작용을 도우며, 甘草는 補中하므로 濕을 이기는 권한을 맡는다.

[原文] 8-2

麻黃杏仁薏苡甘草湯方

麻黃半兩<sup>①</sup> 杏仁十個 去皮尖<sup>②</sup> 薏苡半兩 甘草一兩 炙

上銼麻豆大。每服四錢匕。水一盞半。煎八分。去滓。溫服。有微汗。避風。

[校勘]

① 半兩: 趙開美本에는 ‘半兩’아래에 ‘去節, 湯泡’4글자가 더 있다.

② 去皮尖: 趙開美本에는 ‘尖’아래에 ‘炒’가 더 들어가 있다.

[解釋]

마황행인의이감초탕방

마황5돈, 행인 10알 껍질과 끝을 버린 것, 의이인 5돈, 자감초 1냥.

위의 약을 잘게 썰어서 매번 4돈씩 복용하는데, 물 한잔 반에 달여 8/10이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해서 먹고 약간 땀을 내며, 바람을 피하여야 한다.

[考察] 尤在涇은 이 처방이 風濕을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 마황가출탕과 같이 寒濕在表의 병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았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 두 처방은 비록 外濕의 表實證에 쓴다는 점은 같지만, 병의 상태와 증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다르다. 앞 처방에서는 마황 3량 계지 2량을 사용하였고, 뒷 처방에서는 계지가 없고 마황은 겨우 반량만 사용되었으니, 앞 처방은 表證이 뒤 처방에 비하여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농본초경』에서는 ‘의이인은 맛이 달고, 성질이 약간 차며, 風濕痺로 筋이 당겨 구부러다 폈다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니, 앞 처방은 몸이 아프면서 무거워 돌아누울 수 없는 것(중증)을 치료하고, 뒤 처방은 몸이 아프면서 가볍게 당겨 구부러다 폈다할 수 없는 것(경증)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약물배합으로 보면 마황에 계지를 배합한 것은 溫散에 치우친 것이고, 의이인을 배합한 것은 涼散에 치우친 것으로, 앞의 처방은 寒濕이 表에 있을 때에 적용하고, 뒤의 처방은 風濕이 表에 있을 때에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1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0.

	麻黃杏仁薏苡湯	麻黃加朮湯
疼痛	輕而走掣，一身盡疼，發熱，日晡所劇	重而不移 身煩疼
病因	風寒濕在表，汗出當風，久傷取冷	寒濕在表
病機	風濕相搏，滯留肌表	寒濕傷表，營衛不和
發熱	비교적 重하고 日晡에 더 심해진다.	비교적 輕하고 時間性이 없다.
症勢	증상이 중하지 않고 熱과 燥로 변할 추세가 있으므로 적은 양을 사용한다.	풍과 한이 모두 심하므로 처방의 용량이 모두 크다.
藥物	甘草와 麻黃 용량의 비례는 2:1이다.	白朮과 麻黃 용량의 비례는 4:3이다.
治法	輕清宣化 散寒除濕	發汗利濕
注意	따뜻하게 해서 약간 땀을 낸다.	

표 1. 麻黃杏仁薏苡湯證과 麻黃加朮湯에 대한 鑑別

[原文] 9-1

風濕 脈浮 身重 汗出惡風者 防己黃芪湯主之

[解釋]

風濕病에 맥이 浮하고 몸이 무거우며 땀이 나고惡風하면 방기황기탕을 쓴다.

[注]

風濕在表，法當以①汗而解，乃汗不待發而自出，表尚未解而已虛，汗解之法不可守矣。故不用麻黃出之皮毛之表，而用防己驅之肌膚之裏。服後如虫行皮中，及以①腰下如冰，皆濕下行之徵也。然非芪、朮、甘草，焉能使衛陽復振，而驅濕下行哉？

[校勘]

① 以：『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본에는 ‘以’자가 ‘從’으로 되어 있다.<sup>21)</sup>

[解釋]

風濕이 表에 있으면 마땅히 發汗하여 풀어야 하는데 發汗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땀이 나는 것은 表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虛해지는 것이니, 發汗解表法을 고집할 수는 없다. 故로 麻黃을 사

용하여 皮毛의 表로 내보내는 방법을 쓰지 않고 防己를 사용하여 肌膚의 속에서 몰아내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약을 복용한 다음 마치 벌레가 피부 속으로 기어가는 듯 하고 허리아래가 얼음과 같기까지 한 것은 모두 濕氣가 下行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黃芪, 白朮, 甘草가 아니라면 어찌 능히 衛陽으로 하여금 다시 분발하게 하여 濕氣를 몰아 下行하게 하겠는가?

[考察] 이 조문은 風濕表虛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尤在涇은 방기가 肌膚의 속에서 濕氣를 하행시켜 몰아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原文] 9-2

防己黃芪湯方

防己一兩 甘草半兩 炙① 白朮七錢半 黃芪一兩一分②

上銼麻豆大 每抄五錢匕 生薑四片 大棗一枚 水盞半 煎八分 去滓 溫服 喘者 加麻黃半兩 胃中不和者 加芍藥三分 氣上衝者 加桂枝三分 下有陳寒者 加細辛三分 服後當如虫行皮中 以腰下如冰③ 後坐被上 又以一被繞腰下 溫令微汗 差

[校勘]

① 炙：趙開美本에서는 ‘炙’가 ‘炒’로 되어 있다.

② 一分：趙開美本에는 ‘去蘆’두 글자가 더 들어 있다.

③ 如冰：趙開美本에는 ‘冰’이 ‘水’로 되어 있다.

[解釋]

방기황기탕방

방기 1냥, 자감초 5돈, 백출 7돈5푼, 황기 1냥1푼.

위의 약을 참깨크기로 잘게 썰어서 매번 5돈씩 생강4쪽, 대추1알을 넣고 물 1잔 반에 달여 8/10이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숨이 차면 마황5돈을 더 넣으며, 胃 속이 편하지 않으면 작약 3푼을 넣으며, 기운이 치밀어 오르면 계지 3푼을 넣고, 下焦에 오래된 찬 기운이 있으면 세신 3푼을 더 넣어 먹는다. 약 먹은 후에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고, 허리아래가 얼음처럼 차가우면 이불 위에 앉게 해야 하고, 또 이불로 허리아래를 둘러싸서 따

20) 王占鑿 主編. 金匱要略臨床研究.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p. 55.

21)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金匱要略心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 508.



뜻하게 하여 약간 땀이 나게 하면 차도가 있다.

[考察] 이 조문은 風濕表虛의 證治를 설명한 것이다. 脈浮 身重은 風濕이 肌表를 손상한 것이고, 汗出惡風은 表가 虛하여 衛氣가 튼튼하지 못한 것이다. 증후는 비록 風濕에 속하지만, 表가 이미 虛해져 있기 때문에 마황 등으로 發汗할 수는 없고, 방기황기탕을 사용하여 益氣除濕한다. 황기는 益氣固表하고 방기 백출은 風濕을 제거하며, 감초 생강 대조는 營衛를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表虛를 고려한 한 것이다. 약을 복용한 후에 벌레가 피부 속을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衛陽이 분발하여 風濕이 풀어지려는 징조이다. 이 처방은 여전히 약간 발한시키는 약제에 속한다. 그러므로 처방 뒤에서 따뜻하게 하여 약간 땀이 나면 차도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表가 虛한 상태에서 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陽氣를 보충하고 營衛를 조화롭게 한다는 전체에서 衛氣를 분발하게 하여 사기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sup>22)</sup>

[原文] 10-1

傷寒八九日·風濕相搏·身體疼煩·不能自轉側·不嘔不渴·脈浮虛而澀者·桂枝附子湯主之·若大便堅·小便自利者·去桂枝加白朮湯主之·

[解釋]

傷寒病이 걸린 지 8-9일에 風과 濕이 서로 합쳐져, 몸통과 사지가 옥신거리고 달아올라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리지 못하고, 구역하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으며 맥이 浮하고 虛하면서 澀한 것은 桂枝附子湯으로 치료한다. 만일 대변이 굳고 소변이 잘 나오면 去桂加白朮湯이 이를 치료한다.

[注]

身體疼煩, 不能自轉側者, 邪在表也; 不嘔不渴, 裏無熱也; 脈浮虛而澀, 知其風濕外持, 而衛陽不正, 故以桂枝湯去芍藥之酸收, 加附子之辛溫, 以振陽氣而敵陰邪. 若大便堅, 小便自利, 知其表之陽雖弱, 而在裏之氣猶治, 則皮中之濕, 自可驅之於裏, 使從水道而出, 不必更發其表, 以危久弱之陽矣. 故於

前方去桂枝之辛散, 加白朮之苦燥, 合附子之大力健行者, 於以并走皮中而逐水氣, 亦因勢利導之法也.

[解釋]

몸이 옥신거리고 달아오르며 누워서 능히 스스로 돌아눕지 못하는 것은 邪氣가 表에 있는 것이고 不嘔不渴한 것은 안에 열이 없다는 것이고, 맥이 浮虛하고 澀하면 風濕이 계속 밖에 존재하고 衛陽 또한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桂枝湯에 酸收하는 芍藥을 제거하고 辛溫하는 부자를加하여 陽氣를 분발시켜 陰邪를 대적하게 한다. 만약 대변이 굳고 소변이 自利하다면 表에 있는 陽氣는 비록 약하지만 안에 있는 氣는 아직 滯한다는 것을(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즉 피부 속의 濕氣도 자연히 가히 안으로 몰아 하여금 水道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반드시 더욱 그 表를 發汗하여 오래 동안 약해진 陽氣를 더 위협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처방에서 辛散하는 桂枝를 빼고 苦燥하는 白朮을 加하고 큰 힘으로 굳게 운행하는 附子를 합한 것은 皮中에서 함께 운행하여 水氣를 몰아내도록 한 것이니, 또한 세력에 인하여 下利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이다.

[原文] 10-2

桂枝附子湯方

桂枝四兩<sup>㉑</sup>·附子三枚 炮去皮 破八片·生薑三兩 切  
甘草二兩 炙·大棗十二枚 擘

上五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去滓 分溫三服

[校勘]

① 四兩: 趙開美本에는 兩아래에 '去皮'라는 두 글자가 더 있다.

[解釋]

계지부자탕방

계지 4냥, 부자 3개(濕紙나 濕布에 싸서 炮하고 껍질을 제거하여 8쪽으로 쪼갠 것) 생강 3냥, 자감초 2냥, 대추 12개(쪼갠 것).

위의 5가지 약을 물 6되에 넣고 2되가 되게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3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2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1.

[原文] 10-3

白朮附子湯方

白朮一兩 附子一枚 炮去皮 甘草二兩 炙 生薑一兩半 大棗六枚

上五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分溫三服 一服覺身痺 半日許再服 三服都盡 其人如冒狀 勿怪 卽是朮 附并走皮中 逐水氣未得除故耳

[解釋]

백출부자탕방

백출 1냥, 부자 1개(炮하고 껍질을 제거한 것), 자감초 2냥, 생강 1냥5돈, 대추 6알.

위의 5가지 약을 물 3되에 달여 1되가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한 번 먹어 몸이 저린 것이 느껴지면 半日정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 다 먹어야 하고, 환자가 머리에 무엇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니, 이것은 백출과 부자의 기운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水氣를 몰아내는데 다 없애지 못하여 생긴 증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考察] 맥이 浮虛하다는 것은 浮하면서 無力한 것이고, 澁한 것은 濕이 滯한 상태이니, 表陽이 이미 虛하면서 風寒濕의 邪氣가 肌表에 머무르는 징조이다. 계지부자탕을 사용하여 溫經助陽하고 祛風化濕하는 데, 이 처방은 祛風하는 계지를 많이 사용하고 溫經하는 부자를 배합한 것으로, 이는 表陽이 虛하고 風寒濕이 성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감초 생강 대조는 營衛를 조화롭게 하여 表가 虛한 것을 치료한다. 대변이 굳고 소변이 自利하다는 것은 속에 濕이 없어 裏氣는 조화로운데, 濕邪가 肌表에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계지부자탕을 복용한 후 風邪는 이미 제거되었는데, 寒濕이 남아 신체가 아직 우리하고, 누워 돌아누울 때 아직 불편하다는 것이니, 白朮附子湯을 사용하여 祛濕溫經한다. 백출 부자는 피부 사이의 濕邪를 제거하여 경락을 따뜻하게 하면서 陽을 회복시키고, 감초 생강 대조는 營衛를 조화롭게 하니, 이 처방은 表陽이 虛하면서 濕氣가 매우 성한 경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sup>23)</sup>

[原文] 11-1

風濕相搏 骨節疼煩掣痛 不得屈伸 近之則痛劇 汗出短氣 小便不利 惡風不欲去衣 或身微腫者 甘草附子湯主之

[解釋]

風과 濕이 서로 합쳐져, 뼈마디가 옥신거리고 달아오르며 당기면서 아프고 구부렸다 폈다 하지 못하고, 손을 가까이 대면 몹시 아프며 땀이 나고 숨이 짧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바람을 싫어하여 옷을 벗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몸이 약간 부운 데는 감초부자탕을 주로 쓴다.

[注]

此亦濕勝陽微之證. 其治亦不出助陽散濕之法. 云得微汗則解者, 非正發汗也, 陽復而陰自解耳. 夫風濕在表, 本當從汗而解, 麻黃加朮湯, 麻黃杏仁薏苡甘草湯, 其正法也. 而汗出表虛者, 不宜重發其汗, 則有防己黃芪實表行濕之法. 而白朮附子, 則又補陽以爲行者也. 表虛無熱者, 不可遽發其陽, 則有桂枝附子溫經散濕之法. 而甘草附子則兼補中以爲散者也. 卽此數方, 而仲景審病之微, 用法之變, 蓋可見矣.

[解釋]

이것도 역시 濕이 盛하고 陽이 미약한 증상이다. 그 치료법도 또한 助陽散寒의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微汗이 나고 풀어졌다 것은 흔히 말하는 發汗법과 서로 다르고, 陽이 회복되고 陰이 따라서 풀어진 것일 뿐이다. 風濕이 表에 있으면 원래 땀을 내야 하니, 麻黃加朮湯, 麻黃杏仁薏苡甘草湯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치료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땀이 나서 表가 虛한 자는 거듭 發汗함이 타당하지 않으니, 防己黃芪湯으로 表를 實하게 하고 濕을 行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白朮附子湯은 또 補陽함으로써 (濕을) 行하게 한다. 表가 虛하고 열이 없는 자는 그 陽을 함부로 發散할 수 없으므로 桂枝附子湯으로 溫經散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甘草附子湯은 補中하는 방법을 겸하여 發散시킨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처방을 보면 仲景선생이 병을 살피이

2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2.

매우 세심하다는 것과 法을 운용함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가히 볼 수 있다.

[原文] 11-2

甘草附子湯方

甘草二兩 炙 附子二枚 炮去皮 白朮二兩 桂枝四兩

①

上四味 以水六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初服得微汗則解 能食 汗出復煩者 服五合 恐一升多者 宜服六七合爲妙

[校勘]

① 四兩: 趙開美本에는 ‘四兩’아래에 ‘去皮’두 글자가 있다.

[解釋]

감초부자탕방

炙甘草 2냥, 부자 2개(炮하고 껍질을 벗긴 것), 백출 2냥, 계지 4냥.

위의 4가지 약을 물 6되에 넣고 3되가 되게 달여 찌꺼기를 버린다. 1되씩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세 번 복용하는데, 처음 복용하여 약간 땀이 나면 병이 풀어진다. 능히 밤을 먹을 수 있고 땀이 나면서 다시 가슴이 달아오르면 5흡을 복용한다. 1되가 많을까 걱정이 되면 6흡이나 7흡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sup>24)</sup>

[考察]

方名 比較	防已黃芪湯	桂枝附子湯	白朮附子湯	甘草附子湯
病機特點	風濕在表, 衛陽不固	風濕在表而風偏勝, 表陽已虛	風濕在表而濕偏勝, 表陽已虛	風濕在表, 表裏陽氣皆虛
證候	脈浮, 身重, 汗出當風	惡寒發熱, 身體疼煩, 不能自轉側, 不嘔不渴, 脈浮虛而澀	身體疼痛, 轉側不利, 大便堅, 小便不利	骨節疼煩掣痛, 不得屈伸, 近之則痛劇, 汗出短氣, 小便不利, 惡風不欲去衣, 或身微腫者
治法	實表行濕	溫經散濕	溫助補陽、健脾勝濕	補中散濕、助表陽

표 2. 네 가지 처방 비교

## IV. 결론

24) 廉龍河, 『金匱要略의 形成 및 體系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08.

5. 風濕이 表에 있으면 麻黃加朮湯, 麻黃杏仁薏苡甘草湯 등으로 發汗하고, 이미 汗이 나서 表가 虛하면서 表證이 있다면 發汗法을 사용할 수 없고, 防己黃芪湯으로 表를 實하게 하여 濕을 行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表가 虛하고 熱이 없는(陽이 미약한) 자는 그 陽을 補하여 發散할 수 없으므로 桂枝附子湯으로 溫經散濕하거나 白朮附子湯으로 補陽行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表裏의 陽이 모두 虛한 자는 甘草附子湯으로 補中하는 방법을 겸하여 發散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參考文獻

<단행본>

1. 신성근. 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 서울. 책세상. 2005.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2004.
3. George Lakoff, Mark Johnson.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출판사. 2002.
4. 姜國柱. 孫子兵法精粹解讀. 中華書局. 北京. 2002.
5. Sarah Allan.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예문서원. 2001.
6. 미상. 論語(經書).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7.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2000.
8. David L. Hall, Roger T. Ames. Anticipating Chin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9. Michael Loewe. early chinese texts: A Bibliographical guide.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1993.
10.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1. 司馬遷. 史記. 서울. 경인문화사. 1973.